

금미호 선원-생포 해적 맞교환 이뤄질까

한국 '4G' 이동기술 세계 첫 시연

영화 1편 전송에 9.3초...2014년 국내 상용화

협상 주체 모호하고 '등가교환' 가능성도 낮아 국제이미지 부담속 軍도 하루만에 "처벌" 번복

삼호주얼리호 구출작전 과정에서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과 억류 중인 금미호 선원들의 '맞교환'은 가능할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생포 해적과 금미호 선원 맞교환 방안에 대해서는 "금미호를 납치한 해적과 이번 해적들의 소속을 비교해봐야 할 것"이라며 "생포 해적들을 심문하면 정보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

들과의 티타임 과정에서도 생포 해적을 금미호 인질 해결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그런 식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외교교통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은 25일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실제 교환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협상주체 ▲교환 가능성 ▲국제사회에서의 이미지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선 협상의 주체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말리아는 이른바 '실패한 국가(failed state)'로 1991년 이래 붕괴된 상태로 독재정권 축출 이후 무정부적 내전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협상시 우리 정부가 상대하게 될 중앙정부는 협상은 물론 피고인의 신원조차 특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여겨진다.

협상이 시작된다 해도 '등가교환'이 가능할지 문제다. 우선 생포한 해적과 금미호를 납치한 해적이 같

은 세력이라는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소말리아 해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선박 28척과 선원 600여명을 억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25일 "통계마다 다르지만 소말리아에서 실제 해적행위에 나서는 사람만 수천명에 달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 당국자는 "소말리아 해적들도 국제적 기업화돼 자금을 대는 투자자(investor)와 정보제공자 등이 배후에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배후세력들이 해적 5명의 신병을 인도받기보다는 금미호 선원들의 몸값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해적과 선원의 맞교환은 일

종의 '거래'다. 해적행위를 하는 '불법세력'과의 거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지난해 10월 9일 케냐 해상에서 원양어업 중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금미호305호는 현재 소말리아 해적들의 본거지인 하라데레 앞 해상에 억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앞으로 해적과의 협상에 개입하지 않고 선원들의 석방금도 지급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국방부는 25일 금미호 인질과 맞교환하는 것보다는 국내 처벌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내놓았다. 김 장관이 맞교환 방안을 언급한 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연합뉴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4세대(4G) 이동통신시스템 개발에 성공, 또다시 세계 이동통신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전망이다.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 자동차연구원(ETRI)은 3세대 이동통신시스템인 '광대역 코드 분할 다중 접속(WCDMA)' 방식에서 진화한 4세대 시스템 'LTE(Long Term Evolution)-어드밴스드(Advanced)' 시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25일 세계 최초로 서비스를 시연했다.

ETRI는 시제품을 통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측정할 결과 600Mbps(서비스 유효속도 440Mbps)를 나타내 현재 서비스 중인 3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고속 하향 패킷 접속(HSDPA)' 대비 최

대 40배 이상 빠르고 올해 하반기부터 상용화할 LTE보다도 최대 6배 이상 빠른 성능을 보여줬다.

이는 700MB 용량 CD 1장의 데이터를 내려받는 데 HSDPA가 약 6분 30초가 걸린다면 LTE-어드밴스드는 단 9.3초만에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ETRI는 이번 기술 개발로 국내 업체들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단말 분야 세계시장 40% 점유로 346조원, 기지국 및 네트워크 장비 분야 15%의 세계시장 점유로 16조7천억원 등의 매출을 달성하는 한편 ETRI 자체적으로도 4천억원 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발된 기술은 2014년경 국내 상용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연합뉴스



24일 자살폭탄테러로 2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러시아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열린 특별미사에서 한 소년이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모스크바공항 자살 폭탄테러 동계올림픽·월드컵 안전 비상

210여명 사상, 70명 사망설도... "사건경고 있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쪽 외곽의 도모데도보 국제공항에서 24일 오후(현지시간) 자살 폭탄테러로 추정되는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최소 35명이 숨지고 180명이 부상했다.

현지 언론은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번 테러에 대한 사전 경고가 있었으며 이번 사건의 용의자가 3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사건으로 러시아 각 공항의 보안 수준이 한 단계 격상된 가운데, 일각에선 2014년 동계올림픽과 2018년 월드컵 개최와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상자 수 증가 = 러시아 비상대책부는 이날 테러로 35명이 숨지고 180명이 다쳤으며, 부상자 가운데 86명은 현재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고 밝혔다. 비상사태부는 또 사상자 가운데 영국인 2명 등 외국인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현지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보건사회개발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부상자 가운데 30여명이 중태라고 보도했으며, 이에 따라 사상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목격자들은

블로그를 통해 사망자가 70명에 이른다고 전하기도 했다.

주러 한국대사관 측은 "러시아 비상사태부에 한국인 피해를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폭발물의 강도는 TNT 7kg에 상당하는 규모였으며 폭발물 안에는 피해를 확대하기 위해 철제 파편들이 들어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사고 현장엔 경찰 수사팀이 출동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용의자는 벨트 속에 폭발물을 숨기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현지 정보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번 테러에 대한 사전 경고가 있었다고 보도했다.

◇용의자 이렇게 추정-체첸반군 소행 가능성도 = 이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조직은 아직 없지만 인테르팍스 통신은 보안기관 소식통을 인용, 사고 현장에서 테러범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일부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사전 조사 결과 이 테러범은 북(北)캅카스 출신으로 보인다고 그는 추정했다.



일각에서는 작년 3월 대규모 사상자를 낸 모스크바 지하철 테러 때와 마찬가지로 체첸 반군들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동계올림픽·월드컵 안전 우려 = 이번 테러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과 2018년 월드컵 개최에 대한 안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제프 블래터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이 2018년 월드컵 개최지 지위 수여 선언서에 최종 서명한 지 하루 만에 발생한 것이라 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여성 재혼속도 男보다 빠르다

초혼男+재혼女 20년전 3배

남성보다 여성의 재혼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혼 여자와 재혼 남자의 결합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3.6%에서 2009년 4.5%로 증가폭이 완만했지만 초혼 남자와 재혼 여자의 결합은 2.3%에서 6.1%로 세 배 가까이 늘었다. 과거에는 결혼 경험이 있는 여성이 초혼 남편을 만나 결혼하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여성지위가 점차 향상되고 남녀평등 문화가 확산되면서 재혼 여자와 초혼 남자 간 결혼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국의 혼인율은 젊은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늘면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8153건(전체 혼인의 7.1%)에서 5만8825건(19%)으로 11.9% 포인트가 늘었다. 여성의 재혼이 견수와 비중, 증가폭 면에서 모두 남성을 앞선 것이다.

25일 통계청의 혼인통계에 따르면 남녀 모두 초혼인 비율은 1990년 전체 결혼 중 89.3%에서 2009년 76.5%로 낮아진 반면 남녀 모두 재혼인 비율은 4.7%에서 12.8%로 높아졌다.

남성의 재혼 건수는 1990년 3만3348건(전체 혼인의 8.4%)에서 2009년 5만3770건(17.4%)으로 늘어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포인트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여성의 재혼 건수는 2

李대통령, 러시아 대통령에 위로전

이명박 대통령은 러시아 모스크바 도모데도보 공항에서 발생한 폭탄테러 피해와 관련,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 위로전을 보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25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로전에서 이번 테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하고, 테러행위는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

장을 명확히 했다.

김성환 외교부 장관도 이날 오후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피해자 가족들을 포함한 러시아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며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우리 국민 중 피해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http://www.hankooktea.co.kr

한국제다

대한민국 차 부문 전통식품 명인지정

한국제다는 10만평의 자가농장과 60년의 제다 각종 유기농 제다 대한민국 식품 명인 선정 국제 녹차 품평에서 최우수상 수상 2009년 식품평에서 1등상(금상) 수상 L.A외 3개국 수출중 ISO 22000 인증 획득 전 세계로 나가는 아시아나 기내에 엄선된 名사의 차만 남품 名節의 高貴한 선물은 名사인 만든 名茶를 권합니다.

감동Set, 다담Set, 우전감로, 감사Set

광주 차생원 062-224-2902 • 광주 신세계점 062-360-1232 • 광주 롯데점 062-221-1037 • 광주 현대점 062-510-7040 T. 222-2902, 3973
목포 차생원 061-281-1002 • 서울 차생원 02-730-2983 • 부산 차생원 051-7007-8 광주광역시 동구 소태동 763-4

PREMIUM RESERVE MELYSIA

즉석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예약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

atm NAVER 아이엘리시아 검색

고품격 메뉴, 건강한 맛, 품격있는 서비스 (500석 완비)

- ◆ 홀 : 연인, 친구, 가족(2인석, 4인석, 6인석)
- ◆ 소모임(룸) : 직장회식, 계모임(9인석, 12인석, 24인석, 32인석)
- ◆ 대모임(룸) : 돌잔치, 칠순연, 피로연, 세미나(52인석, 92인석, 150인석)

아이부터 어른까지 3대가 만족하는 즉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고객님의 소중한 추억과 맛있는 행복을 약속합니다.

평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토·일 공휴일	영업시간	성인 (중학생이상)	취학어린이 (초등학교)	미취학어린이 (5세-7세)
LUNCH	11:30-15:00	22,000원	12,000원	8,000원	LUNCH	11:30-15: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27,000원	15,000원	10,000원	DINNER	16:00-22:00	31,000원	18,000원	12,000원

★ 어린이 요금은 의료보험증 등을 지참하시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약문의 062)671-1199 유스퀘어 터미널 2층 CGV 옆